

광주 아동학대예방경찰 '너무 적다'... 한 명이 9207명 담당

전국 628명뿐...광주, 담당 아동수 울산 이어 광역시 중 최다 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등 수행에 '기피 보직' '정인이 사건' 재발 않도록 인력 충원·전문성 향상 방안 시급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광주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담당아동 수가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APO 인원은 총 628명이다.

전국 만 0-9세의 아동 수가 약 397만 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는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9207명으로 울산시 9850명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았다.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다.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서범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 APO가 해당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APO의 애로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에선 APO가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 이뤄지고 한참 뒤 신고가 이뤄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대다수라는 점,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취급하는 데다 이미 처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해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라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 '정인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줄줄이 징계 조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두 번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전국의 APO 660여 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50여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현장 지침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회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은 업무 전문성이 중요한데, APO는 다른 경찰 업무도 많이 본다"며 "문자 그대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만들어 보직 변경 없이 같은 업무를 보는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인이 사건' 고객 숙인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광주대, 시·도와 컨소시엄 참여

광주대학교가 광주·전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에 참여한다.

광주대는 광주·전남지역이 선정한 지역산업 특화 영역인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모든 분야에 참여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는 광주대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과·융합소프트웨어학과가 참여하며, 미래형운송기기 분야에는 융합기계공학과·미래자동차공학과·국방기술학부·사진영상드론학과가 참여한다.

광주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협력 진화형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해 핵심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위영민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광주대 사업단장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참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 특화된 융복합 인재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또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발전과 청년 지역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유치원생도 이용 쉽게 광주교육청 어린이 홈페이지 오픈

광주교육청이 어린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교육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어린이 홈페이지(www.gen.go.kr/child)'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복잡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홈페이지' 신설 작업을 추진했다.

'어린이 홈페이지'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와 디자인으로 채워졌다.

'어린이 홈페이지'는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기를 통해 접속 가능하고 ▲교육청을 소개해요 ▲광주교육이야기 ▲배우며 놀이해요 ▲우리끼리 도란도란 등 4개 메뉴로 구성됐다.

'교육청을 소개해요' '광주교육이야기' 메뉴에서는 어린이 친화적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통해 광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배우며 놀이해요' 메뉴에서는 어린이들이 학습 동영상, 직업정보,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광주·전남 7명 포함

광주청 '송일고 동문' 등 3명·전남청 4명 등 전국 107명

경찰청은 7일 광주경찰청 송기주 강력계장과 전남경찰청 박승희 여성청소년계장 등 107명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 발표했다.

광주청에서는 송 강력계장 외에 장승명 교통안전계장, 권석진 생활안전계장 등 3명이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예정자에 포함됐다.

전남청은 박승희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임진영 청문감사계장, 박상훈 111종합상황실 관리팀장, 공정원 생활안전계장 등 4명이 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청 총경 승진 예정자들은 모두 광주 송일고 동문들로, 송 계장은 송일고를 거쳐 전남대를 졸업한 뒤 간부후보 47기로 경찰에 입문해 남부서·광산서 행사과장 등을 맡았다.

장 계장과 권 계장은 송일고와 경찰대(11기)를 졸업한 동기로, 장 계장은 북부서 정보과장, 광주청

외사계장 등을 지냈고 권 계장은 광주청 기획예산계장, 생활안전계장 등을 역임했다.

박승희 여성청소년계장은 광주여고와 경찰대(10기)를 거쳐 청량리경찰서 강력반장, 분당서 정보계장 등을 지냈고 임 계장은 순천고와 경찰대(9기)를 나와 전남청 감찰·감사계장을 맡아왔다.

박상훈 팀장은 지난 1990년 순경으로 입문해 담양서 생활안전과장, 지방청 교통안전계장 등을 지냈고 공 계장은 1994년 경찰에 입문, 전남청 감사계장·기획계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수사 전문가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현장 치안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독서로 상상력·창의력 갖춘 미래인재 양성"

전남교육청, 독서인문교육 강화

'하루 30분 어디든 도서관' 등

전남교육청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올 한 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즐거운 독서 경험을 통한 평생 독서인 양성을 위해 '2021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독서인문교육은 철학·역사·문학 등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도 교육청은 올 한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학교자율사업선택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이를 실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하루 30분 어디든 도서관'

운영,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독서기본 역량 강화, 독서능력 진단과 맞춤형 수업 계획 수립 등이 제시됐다.

또 독서인문 기반 주제 중심 수업 실시, 교원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독서인문 활동,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도 포함됐다.

도 교육청은 해당 과제를 학교가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연계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종혁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독서인문 기반 수업과 다양한 활동은 학생들의 자아 성찰과 삶의 가치 추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독서인문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한 독서인문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